

천주보



그림 | 강 마리아

입당송 시편 47(46),2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 열왕 19,16-19-21

화답송 시편 16(15),1-2 5.7-8,9-10,11(◎ 5 3 참조)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 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 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 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 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 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갈라 5,1,13-18

복음환호송 1사무 3,9; 요한 6,68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루카 9,51-62

영성체송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본받는

사제 성화의 날



6월은 죄 많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기념하는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28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평생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 신부님들께서 더욱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신부님들께서는 사제 성화의 날에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계실까요?

4면에서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 봅시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일



홍미현 세레나
서울대학교 청년부 주보편집부



“잘 지내고 있어? 어떻게 그곳은 외롭지 않아? 괜찮은 거니?”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안부 인사를 듣고 있는 저는 지금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10분이면 홍대에서 친구를 만나 쇼핑을 하고 저녁을 먹던 그곳에서 벗어나 2시간에 한 번 버스가 지나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처음 이곳에 이사를 왔을 때, 저는 환영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왜 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지~!” 순간 생각이 멈춰질 정도로 무슨 말인지도 모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고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가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힘이 드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거부당하시고 버림받으셨지만 홀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시며 제자들에게 따르기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냉정하게 주님의 길 이외의 다른 것들은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며 저의 마음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환영받지 못하셨지만, 마음만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함을 알았습니다. 환영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사를 하면 떡을 나누고 인사를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의 문제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적극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디서든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다가서야 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일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혼자 하는 일이 더 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제 모습을 찾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 점점 서툴러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사람의 맛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했던 일들과 때로는 내 의지가 아닌 일들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나의 의지의 문제였을까. 여기에 살게 된 것은 누구의 의지였을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곳에 새로운 터를 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 나의 길은 어떤 것일까.’ 햇볕이 따사로운 시골 정류장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고민해봅니다. 그러다 몸이 힘들고 덥다 느끼고 순간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칩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합니다!” 마음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연대하며 묵묵히 살아가야겠습니다.

♡ 함께 들어요 ♡

중림동 약현 성당 청년들이 준비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연주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른 성경 말씀, 묵상글 낭독과 함께 주제에 맞게 선곡된 성가를 찬양하는 행사였습니다. 연주회 중 '부르심'파트의 성가곡 '사명'입니다.

☞ Youtube채널에서 다른 성가곡도 함께 들어보세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세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교황님 말씀

오늘은 초대 교황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을 위해 기도하는 교황주일인데요. 교황주일을 맞아 청년들의 마음속으로 다가온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I'adesoo di Dio)입니다!"

이 말씀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파나마 세계청년대회 폐막미사 강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의 이 말씀은 내게 새로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머물러 있던 공동체 안에서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추억과 그리움으로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그때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와 같이 지난날에 대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도 나중에는 그리움으로 남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성혁 베드로-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 들지 마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조언입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저는 가까운 이들에게 좋은 말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될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같길 바라던 이기적인 생각들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건 아닌지 교황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욱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장유리나 수산나-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 말씀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교황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가톨릭교회의 수장이신 교황님께서도 우리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교황님이 더 크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약한 모습 혹은 못난 부분을 드러내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에게 나의 힘든 부분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누군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행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청하는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정대우 다니엘-

달력을 살펴보면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과 같이 특정한 혹은 특정 집단을 기념하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전례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제 성화의 날’은 신부님들께서 수행하고 계시는 사제직에 대해 스스로 되짚어 보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심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날입니다.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 여러 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Q 사제로 살아가시면서 신부님께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A 현재 과테말라에서 하고 있는 선교의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사가 필요한 곳에서, 선교 사제로서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저 역시 하느님 안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김현진(토마스데아퀴노) 신부님
과테말라 해외선교
Parroquia de San Pedro y San Juan Bautista

Q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 신부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사제로서 살아가고자 하시나요?

A 사제가 부족한 과테말라에 살면서 더더욱 ‘사목’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무엇보다도 ‘양’냄새 나는 목자로 살고 싶습니다.

Q 사제 생활을 하시며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제1회 PAX제입니다. PAX제는 신촌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을 알리는 행사인데, 그날 신촌에서 제1회 맥주 축제를 10,000명 대상으로 연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 행사가 취소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 예보로 인해 맥주 축제가 취소되었는데 정작 당일 이 되자 햇살이 예쁘게 내려오며 우리는 예정대로 거리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도, 대학생들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미사를 봉헌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신부님께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신부님을 말씀해 주세요.

A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아버지 신부님이신 강귀석 아우구스티노 신부님과 첫 본당 주임 신부님이신 홍기범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그분들께서 신자분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곁에서 보면서 가장 크게 배우고 깨닫고 있습니다.



최봉용(베드로) 신부님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교사목부

사제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신부님들의 다짐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부님들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사목 목표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신부님들께서 항상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교회 안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는 것은 어떨까요?

[편집부 송슬기 미카엘]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MOMENTO)

말씀과 음악과 쉼이 함께하는 시간

그 순간(Momento)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보세요

때, 6월 25일, 7월 30일, 9월 24일, 10월 29일, 11월 26일,
12월 17일 (화) 19시30분(매월 1회 / 총6회),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홍대) 1층 카페 / 진행 예수수도회 수녀들
문의 338-7832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259차 선택 주말 접수

일정 9월 20일 ~ 22일 (2박 3일)

장소 한남동 쏬뽀두알 수도원

금액 140,000원

대상 20세 ~ 35세(198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접수 7월 3일 (수) 14시~ (선착순 마감) 청년부 홈페이지
(www.2030.or.kr)로 신청